

**출발..**

출발하는 26일 아침, 열 번도 넘게 짐을 확인했지만 중국을 나갈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빠뜨린 것 같은 뒤숭숭한 기분을 느끼며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대련에서만 1년 넘게 유학생생활을 했지만 공부와 집에 또 손을 벌리기 싫다는 핑계로 다른 도시들은 물론이고 대련개발구에 위치한 민족대학교조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구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1시간동안 짧은 비행을 마치고 대련 공항에 도착해 출입국카드를 쓰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분명히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급한 마음에 공항직원을 아무나 붙잡고 핸드폰을 비행기에 떨어뜨린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다행이도 전화연결이 돼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들의 “조금”은 우리들의 “조금”의 개념과 달랐던 것일까?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한 번 물어봤더니 메모지에 9번이라는 게이트 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하지만 9번 게이트는 우리가 내린 국제선과 300미터는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국내선이었다. 막막하던 순간 다행이도 대련민족대학에서 마중 나오신 선생님 한분의 도움으로 쉽게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다. 학교주변에 도착해서 두 분의 선생님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배정과 간단히 학교구경을 마치며 대련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본 대련>

**일상..**

도착한 다음날부터 바로 수업이 시작되어서 들뜬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부랴부랴 수업을 하는 교실로 향했다. 첫 수업은 회화수업이었다.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무중국어라고 해서 어려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수업을 듣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수업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배우고 본문을 읽고 짝과 함께 그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회화수업을 마치고 1시간의 점심시간 후에 오후 듣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내용은 회화수업의 내용과 비슷했다. 듣기파일을 듣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께서 풀이를 해주셨다. 회화나 듣기 수업 모두 유학생생활당시 듣던 회화, 듣기수업의 수업방식과 비슷했다. 듣기수업은 매일 수

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2개 정도의 짧은 뉴스를 보여주시고 뉴스 내용과 표현정리를 해주셨는데 수업내용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경제용어들과 현재중국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중국어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상무중국어 회화수업>

### 일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한국에서 집을 쌀 때 엄마가 우산을 챙기라는 말을 왜 안 들었을까 하는 후회를 하며 교내슈퍼에서 우산을 샀다. 오늘은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위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과 함께 식당을 찾으러 코리아타운을 돌아다녔다. 적당한 식당을 예약하고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 한 달 동안 건강하고 잘해보자는 마음을 다졌다.

### 여행..

오늘은 개발구에 위치한 금석탄에 가는 날이다. 날씨는 조금 더웠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다. 솔직히 말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출발할 때는 가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다. 처음 금석탄 입구에서 사진 몇 장을 찍고 무술학교로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무술학교학생들의 공연을 보게 됐다. 어릴 때부터 중국 무협, 무술영화를 좋아했던 나에게는 내 눈으로 직접 무술공연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공연 시작과 동시에 동영상을 찍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대련개발구에 위치한 금석탄 입구>



<무술학교 전경>

## 기업참관..

오늘은 수업을 모두 마치고 중국 기업참관을 하는 날이다. 솔직히 기업참관이라는 말에 tv 속에서 나오는 큰 기업을 생각했는데 막상 차를 타고 도착해보니 지금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허름한 공장이었다. 공장내부로 들어가 보니 작업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JayLand 라는 수공예품을 수출하는 회사의 공장이었는데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철근을 자르고 보호안경도 없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신의 작업량에 따라 월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공장을 다 둘러본 후 본사건물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샘플들이 모여 있는 창고를 볼 수 있었는데 내가 방금 봤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멋진 작품들이 진열되어있었다.



<열악한 작업환경>



<열악한 작업환경>



<도색 작업 중인 수공예품>



<본사에 있는 수공예품 샘플>

## 여행..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심양으로 가기위해 대련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차역 주변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식사를 마치고 기차에 올랐는데 에어컨도 잘나오고 5시간 걸렸지만 엉덩이가 아픈 거 빼고는 비교적 편안하게 심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보니 첫날부터 비는 내리고 게다가 기차역이 공사 중이라 기차역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비록 비는 왔지만 일정은 계속되었다.

숙소 가까운 곳에 있는 요녕성박물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4시가 조금 넘어서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조선족거리로 유명한 서탑가를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심양 서탑가>



<서탑가에 위치한 북한식당>

둘째 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북릉으로 향했다. 북릉 지도를 보고 너무 넓어서 운동도 할겸 자전거를 탔지만 기어가 없는 자전거라 땀을 빼질 빼질 흘리며 구경을 했다. 북릉 구경을 다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고궁으로 향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한곳 제대로 구경하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저녁은 서탑가에 있는 북한식당으로 이동해서 교수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북한식당이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기 꺼려지기는 했지만 그곳 종업원들은 우리가 남한사람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평양냉면>



<심양 북릉 입구>

## 마지막..

어느덧 대련에서의 짧은 생활도 마무리 되어가면서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다.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었지만 선배는 후배들보다 잘 봐야 한다는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시험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솔직히 이번 프로그램 선발인원의 학년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수업의 난이도 조절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BCT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교재를 보니 학과전공수업인 중국어중급회화 책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물론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휘들과 표현들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수업의 난

이도 조절에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상무중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중국 오기 전 학기에 들었던 중국어문법작문 수업과 응용문연습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문법작문수업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그리고 몇 백 개의 문장들, 응용문연습 수업시간에 번역을 하면서 배웠던 표현들 모두가 내 중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걸 중국에 나와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 이별..

대련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상해로 가는 날 아침이다. 비록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이제야 학교 주변의 건물들도 익숙해지고 주변에 학교와 기숙사도 익숙해질 때쯤 떠나려고 하니 막상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가보고 싶었던 곳도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아침 일찍 다시 한 번 청소하실 아주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1층에 내려왔는데 기숙사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머무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아쉬워하셨고 대련민족대의 선생님들까지 기숙사 앞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배웅해 주시고 가는 길에 배고플 거라며 간식도 준비해주셨다. 너무나 감사했고 나도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작별인사를 하고 상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대련민족학원 정문>



<개발구 코리아타운 입구>

## 여행..

대련에서의 짧은 생활을 마무리하고 상해로 가는 날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상해를 갈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상해의 야경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대되는 여행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정도 지나고서야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안에서는 잘 몰랐지만 공항입구를 나서자마자 숨이 막혔다. 상해 날씨가 습하고 덥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기분 나쁜 날씨였다. 교수님이 아시는 차엽심평사 류광일 선생님의 도움으로 숙소까지 가는 버스와 숙소예약까지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 간단하게 짐을 풀고 류광일 선생님이 계시는 덕생연당이라는 차관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며 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 차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둘째 날도 류광일 선생님은 바쁜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을 초대해서 차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덕생연당 1층>



<덕생연당 내부모습>

아침 일찍 준비를 상해박물관으로 가기위해 지하철을 탔다. 숙소에서 지하철역까지 가까워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수많은 외국인들이 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있었다. 금방 줄어들 줄 알았는데 40분이나 지나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 1층부터 4층까지 각 시대별, 테마별로 잘 전시되어있었지만 역시나 심양에 있는 요녕성 박물관에는 못 미치는 듯 해보였다.

상해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고 보고 싶은 곳은 많았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전자방(田子坊)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좁은 입구를 보고 어떤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넓고 허름한 건물들이 미로처럼 얹혀있는 좁은 골목이었는데 그 좁은 골목들 모두 작은 상점들과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술집까지 다양한 상가들이 밀집되어있는 공간이었다.



<상해 박물관 전경>



<전자방 田子坊>

해가 지고 8시로 약속되어있던 우리들만의 깜짝 만남을 위해 와이탄으로 향해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약속장소를 잘못 아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고 우리는 그냥 상해의 야경을 즐겼다.



<와이탄에서본 동방명주>



<와이탄에서본 상해의 야경>

아침 일찍 중국인친구의 추천으로 우리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칠보노가 (七宝老街)로 향했다. 상해남역에서 택시를 타고 20~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있는데 도착해보니 좁은 골목에 작은 상점들과 먹을거리를 파는 곳이 많았다.



<칠보노가 입구>



<칠보노가>

그리고 상해에 와서 한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그곳 바로 상해 임시정부이다. 입장권을 사고 건물 내부로 올라가기 전에 1층에서 간단한 영상자료를 보고나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공부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련에서의 여순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방문하니 너무나 작고 허름하고 좁은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상해 임시정부를 나와서 바로 옆 상해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신천지가 있다.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에 오는 순간부터 이곳은 중국이 아니었다. 그냥 중국관광객이 많은 유럽 같았다. 많은 외국인들이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음식점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학생입장에서는 한 번 가서 먹어보기는 팬찮은 것 같다. 모든 음식점 앞에 메뉴판이 있으니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한다면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비싼 가격에 다시 나오는 일을 없을 것이다.

비록 상해에서의 짧았던 4박5일의 일정이었지만 항상 Tv속에서만 봐오던 상해를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상해에 계신 선배님들과의 만남 또한 너무나 즐거웠다. 선배님들 덕분에 하마터면 못보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던 마시청 서커스도 손에 땀을 쥐고 볼 수 있었다. 상해에서의 마지막 밤은 선배님들과의 즐거운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상해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끝나갔다.



<마시청 서커스>



<마시청 서커스>

짧은 한 달의 일정이었지만 느끼는 것도 많았고 아쉬웠던 것도 많았다. 나름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긴 했지만 역시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또 내가 아는 일상회화와 상무중국어는 천차만별이었다. 대부분이 만족스러웠지만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상무중국어 수업이었다. 듣기수업은 수업시간에 BCT시험 연습문제와 간단한 중국 뉴스를 보면서 학생들이 BCT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첫날 회화수업을 듣고 솔직히 조금 의아했다. 수업내용과 교재의 내용의 100% 중 70%는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전공수업인 중국어 중급회화의 책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그렇다보니 수업시간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자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씩이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기분이었다. 선발된 인원 중에서 학년이 낮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업의 난이도를 너무 높게 정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수업의 난이도 조절에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한 달간의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 되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족학원에 처음 도착했던 날부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상무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중비즈니스 복수전공자 우선선발이라는 말을 듣고 포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는데 감사히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한 달을 뒤돌아보니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무중국어를 접할 수 있었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참관하고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평생에 다시 해볼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비록 짧았던 한 달이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내가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